

2019년 4/4분기

##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

### ㉠ 위원회 개요

- 일 시 : 2019. 10. 22.(화) 14:00
- 장 소 : 본관 3층 기획상황실
- 안 건
  - 4/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대상 및 융자액 결정
  - 2020년도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심의
- 참 석 : 7명 (경제친화국장, 전통시장과장, 재무과장, 신○○ 위원, 윤○○ 위원, 안○○ 위원, 조○○ 위원)

### ㉠ 회의록

> 간 사 : 심의위원 소개(생략)

> 위원장 : 인사말씀, 개회(생략)

#### < 의사봉 3회 연타 >

> 간 사 : 4/4분기 심의회 상정 첫 번째 안건 설명

○ 기금운용 현황 및 융자신청 현황, 선정기준 현황

○ 상정안건 설명

- 4/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업체 및 융자액 선정 안

· 심의 대상 : 50개 업체 4,400백만원

· 융자절차간소화 대상 : 33개 업체 990백만원

> **전통시장과장** : 부연설명을 드림. 지난 분기부터 달라진 내용이, 우리은행 상생협력자금 4년간 100억원, 즉 연간 25억씩 추가로 집행하게 됨에 따라, 이번 4분기에도 우리은행 자금을 배정함. 그러나 우리은행 자금이 우리 기금보다 이율이 0.3~0.5%정도 높아서, 지난 분기 심사 후순위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집행했음. 금번에도 심사 후 상위권 업체들에게는 금리가 낮은 우리 기금을 배정하고, 그 다음 등수부터는 동의하는 분들에 한해 금리가 조금 비싼 우리은행자금을 받아 가시게끔 할 예정임.

또 한가지 양해를 구할 내용,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 긴급 융자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20억이 얼마전 의회에서 통과되어, 현재 우리 기금 여유액이 40억원임. 따라서 서울시와 중기부 각 300억, 중구 자금 40억 이렇게 제평 상인 대상 융자지원 계획이었으나, 화재 피해 현장 조사, 재해확인증 발급 일정 등 절차가 늦어져서, 아직 신청을 받지 못함. 또한, 일반 기업체들에게 전부 이자율이 높은 우리은행자금만을 배정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어... 중구 자금 40억을 전체 다 제평에 배정하지 않고 15억 정도를 일반 기업체에 배정하기로 함.

> **위원장** : 이번 분기 제일평화시장에 배정되는 금액은, 추경예산 20억, 당초 기금예산 중 집행잔액 6억 해서 총 26억이고, 일반 기업체에 지원되는 융자는 우리기금 15억과 우리은행자금 20억 해서 총 35억원을 융자지원하는 것이며 오늘 심의안건임. 참고로 지난 9월 말, 제평 화재 피해 상인들 대상 융자 금리 인하 건(1.0%)에 관해 서면심의 했음.

융자액의 100%부터 85% 중 어떤 안을 선정하는 게 좋을지 의견주시기 바람. 배부해드린 별첨자료 큰 용지 첫 번째 장을 보시면 금액이 검은 글씨로 표시된 게 우리 기금이 배정되는 업체들이고, 그 다음 후순위들은 우리은행자금이 배정되는 업체들임.

> **재무과장** : 이제까지 계속 80%안 선정을 해왔으니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5%기준으로 갔으면 함.

그런데 85%안 선정할 경우 지원 금액이 총 33억인데, 이번 우리 예산은 35억이다. 나머지 2억은 잔액 아닌지?

- > 담당자 : 금번 우리 총 예산은 6쪽에 기재된 25억원. 총 35억원 중 선집행 후심사 대상인 간소화 33건 9억9천만원을 제외하고 25억원임.
- > 조○○ 위원 :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안으로 정한 건, 항상 정해놓은 예산이 100% 다 집행이 안 되니까 그보다 여유 있게 금액을 정하신 것 같음.  
그런데 90%와 85%가 한 업체 차이인데. 마지막순번 1억 7천 이 회사가 좀 더 아래 순위에 있다면 더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텐데....
- > 전통시장과장 : 후순위자인데 너무 고액을 신청해서....
- > 조○○ 위원 : 이 업체가 끼어있어서 6개 업체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없음.
- > 재무과장 : 그럼 오늘 심의에서 이 업체를 뺄 수도 있나? 이 업체를 빼고 6개 더 많은 업체에 줄 수는 없는지?
- > 위원장 : 평가지표로 점수를 매긴 거기 때문에 순위 조정은 어려울 것.
- > 전통시장과장 : 3천만원 신청자가 이렇게 많다면 다음엔 3천만 원 건들은 집행을 먼저 해야 될 것 같다.
- > 재무과장 : 자료대로라면 예산보다 8억을 초과해서 심의하는 건가?
- > 전통시장과장 : 항상 선정자들 중 30%이상은 결격자가 발생해서 집행이 안 되다보니 30% 정도를 추가로 뽑았음.
- > 재무과장 : 100% 정확히 받아간다면 몇 번에서 끊어지는지?
- > 조○○ 위원 : 중구 자금도 132%가 적용된 건가?
- > 담당자 : 그렇다. 30% 더 선정하였음.

- > 재무과장 : 32%를 빼면 몇 번까지가 선정자고 몇 번부터 예비인건지?
- > 조○○ 위원 : 예전에 우리은행 자금이 없었을 때는 예산의 100%까지가 검은색 금액이었고, 그 이후에 100~132%까지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었다. 그런데 이번엔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헷갈리는 것 같다.
- > 담당자 : 이제까지 분기별 집행 실적을 볼 때, 항상 선정된 금액 중 8억~9억 사이로 잔액이 남았었다.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도 선정안을 마련함.
- > 재무과장 : 그럼 우리은행자금도 132% 뽑은 건가? 우리 기금 예비, 은행자금 예비 따로 있다는 건가?
- > 전통시장과장 : 기금은 일단 선정자까지만 끊어버리고, 잔액이 남으면 남는 대로 남겨두려 함. 안 그러면 중간에 예비순번에 해당되는 업체가 애매해진다. 우리기금과 은행자금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, 한 등수 차이로 못 받아가는 상황이 발생하므로....
- > 조○○ 위원 :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, 이 등수대로 순차적으로 한다, 구 자금이 끝나면 우리은행자금을 소진하는 것으로.... 순차적으로 연락을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, 만약 등수 1번한테 선정됐다 연락을 하고, 23번한테도 우리은행 자금이 되셨다고 동시에 연락을 하면 안 될 것 같다.
- > 전통시장과장 : 85%안 22등까지 검은색 금액 표시된 곳까지가 구자금 배정자들이고, 설령 30% 정도가 남더라도 우리 기금은 거기까지만 쓰고, 등수 23번 파란색 표시된 곳부터는 우리은행자금 안내를 순차적으로 연락하는 것으로 하겠다.
- > 재무과장 : 기존에 하던 대로 85%안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.
- > 조○○ 위원 : 만약 구 자금이 남으면 그건 다음해로 이월되는 건가?
- > 전통시장과장 : 이월되지 않는다.

- > 재무과장 : 그럼 남은 예산을 3천만원 신청한 업체들에 주는 건 어떤지? 구 기금을 남기지 말고 최대한 소진하고, 나머지를 우리은행 자금을 배정하셔야 될 거 같다.
- > 조○○ 위원 : 저도 동의함.
- > 재무과장 : 돈을 굳이 남기면서까지 해야 되는지... 기금부터 소진하고 나머지는 우리은행자금 쓰도록.
- > 간사 : 그렇게 되면 기금을 소진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므로 기간 문제가 걸린다.
- > 조○○ 위원 : 이전에 예비업체를 이렇게 선정했을 때, 못 받는 경우가 있었는지? 23번부터 우리은행자금일 경우에, 지금 등수 상으로 22번이 구 자금 예비인데 못 받게 되면 손해인데...
- > 간사 : 예비업체까지 갔는데도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다. 예비까지 못 받아가는 경우는 없었다.
- > 재무과장 : 구분하자. 구 자금은 1번부터 22번까지 하고, 은행자금은 23번부터 시작하는 걸로, 예비는 각각 따로 정해서 다 받아갈 수 있도록.
- > 위원장 : 정리하면, 1~22등까지는 우리 기금, 나머지 23등부터 은행자금을 받아 가실 수 있게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정함.  
기금 다 쓰려고 한 달 기다리다가 은행자금을 그때 돼서 시작하면 너무 늦을 것 같다. 1번부터 22번까지 기금 배정하고, 은행자금도 따로 배정해서 두 개가 동시에 진행돼야 할 것 같다.
- > 신○○ 위원 : 원래 구 자금 40억을 전부 다 제평에 쓰기로 한 것 아닌가?
- > 전통시장과장 : 그렇다. 원래 계획은 구 자금 40억을 전부 제평에 배정하는 것이었지만, 거기서도 30%정도는 결격자가 발생해서 남을 거라고 예상하고, 그걸 일반기업체에 배정하려고 했음. 근데 일반기업체 심사가 먼저 진행돼서...

- > 신○○ 위원 : 우리은행자금 20억 중 간소화 건 33건 9억원은 지금 집행중이고 현재 은행에 30명 정도 왔다 가셨음. 근데 문제는 올해 안에 보증서 발급이 다 가능할지? 건수가 너무 많아서...
- > 윤○○ 위원 : 보증 지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됨. 중구 자금 말고도 해드림 등 특례보증 지원하고 있는 건이 많다.
- > 조○○ 위원 : 궁금한 점 있어, 별첨2 자료를 보면 42등 건설도기통상과 위에 2개 업체가 합계점수가 같은데, 순위가 이렇게 매겨진 이유가 있는지?
- > 담당자 : 동일점수일 때 우선순위 기준이 있다. 대표자가 중구에 거주하거나 직원 중 중구 거주민 이 있을 경우에 더 우선순위....
- > 재무과장 : 구 기금은 구기금대로, 우리은행 자금은 우리은행자금대로 각각 집행하자.
- > 위원장 :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서 정리. 등수 순서대로. 기금은 기금 순서대로, 우리은행자금은 우리은행 자금 각각 순서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다.  
다른 의견 없으시면 신청액의 85%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다. 이의 없으신지.
- > 위원모두 : 이의 없음.
- > 부위원장 : 그럼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85%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함.

<의사봉 3회 연타 >

> 간 사 : 2번째 심의회 상정안 설명

- 2020년도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심의
  - 2020년 용자규모 : 75억원(전년도 대비 5억 감액)
  - 대출이율 : 1.5% 로 인하 예정

> 위원장 :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.

> 전통시장과장 : 저희 기금 용자 이율이 2%로, 이자 높은 자치구들 중에 하나.... 이율이 세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부터 낮출 예정.

> 재무과장 : 한국은행 금리도 1.25로 내려갔으니 우리도 1.4까지 내리는 게 어떤지. 기업체 이자 부담 완화 위해 가장 싼 이율로 도와드리면 좋지 않을까.

> 전통시장과장 : 1.0은 넘어야 함. 우리은행에 고객관리 수수료도 나가야하고, 원금에 영향도 있어서...

> 안○○ 위원 : 저는 찬성. 어차피 도와주려고 하는 제도이고, 재원을 불리려고 하는 게 아니니 내리는 게 좋을 것 같다.

> 위원장 : 다른 위원님 생각은?

> 재무과장 : 1.4로 하게 되면 운영에 적자가 되는지?

> 전통시장과장 : 그렇지 않다.

> 조○○ 위원 : 저도 동의. 근데 내년도 이율을 줄이는 대신 5억원을 감액한 건지?

> 전통시장과장 : 그건 아니다. 내년 용자규모는 내년에 들어올 돈에 맞춰서 지출규모 75억을 확정할 것이고, 이자는 별개.

> 위원장 : 우리구가 타구보다 높은 편이었으니 내년부터 낮추는 것으로...  
다른 의견 없으시면 말씀하신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함.  
(내년도 융자규모는 75억원, 대출금리 연 1.4%로 의결)

> 위원장 : 폐회(생략)

< 의사봉 3회 연타 >